

영장류 실험의 윤리와 가장자리 상황 논증*

최 훈†

추정완·최경석·권복규와 김명식 그리고 코헨은 동물 실험을 옹호한다. 특히 추정완 등은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도 비록 제한조건을 두기는 하지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동물 실험 일반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어도 영장류 실험은 분명히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자리 상황 논증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곧 가장자리 인간과 영장류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가장자리 인간에게 실험을 허용할 수 없다면 영장류에게도 실험을 허용할 수 없다.

【주요어】 동물 실험, 영장류 실험, 가장자리 상황 논증, 동물권, 동물 해방, 추정완·최경석·권복규, 김명식, 코헨

1. 머리말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는 주로 동물을 음식으로 먹는 것,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동물원·서커스·사냥·모피 등의 영역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의 이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 중 음식이나 동물원·모피 등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동물에게 끼치는 손해에 비해 인간이 얻는 이익은 아주 사소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예컨대 동물을 먹기 위해 사육하고 도살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상당한 양의 고통을

* 접수완료: 2009.5.12 / 심사 및 게재확정: 2009.6.1 / 수정완성본 접수: 2009.6.11

† 강원대

주지만 인간이 거기서 얻는 이익인 입맛은 그 고통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또 육식에서 생기는 영양 섭취는 채식으로도 보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 동물 실험으로 인해 동물이 받는 고통은 사육이나 도살 때보다 더 크다.¹⁾ 사육이나 도살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쾌적한 사육과 고통 없는 도살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물 실험은 대부분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통은 필수적이다. 스트레스 실험, 독성 실험, 전기 실험 등은 동물이 얼마만한 고통을 느끼는지 관찰하고 측정하려는 실험들이다. 심지어 마취 없이 생체 실험도 자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동물 실험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그 고통을 능가할 만큼 상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옹호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물권 반대론자인 코헨(Carl Cohen)은 “연구에서 동물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쾌락과 고통을 비교할 때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생겼을 끔찍한 고통을 잊지 말고 저울질해야 한다. 그 고통은 동물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²⁾라고 말한다. 동물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인간에게 생겼을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각종 질병과 죽음이다. 인간은 동물의 희생에 힘입어 여러 백신과 치료법을 얻게 되었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한다.

추정완·최경석·권복규(이하 ‘추정완 등’으로 통칭)는 “동물권 옹호론과 영장류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검토”에서 동물 실험, 그 중에서도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에서 생기는 윤리적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제한 조건을 두기는 하지만 영장류 실험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명식 교수(이하 김 교수)는 “동물실험과 심의”에서 심의 민주주의 이론을 이용

1) 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교육도 포함된다. 과학 전시 프로젝트, 해부 실습, 처치 연습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DeGrazia (2002, 101쪽)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기 위해 ‘동물 실험’보다는 ‘동물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말이 일리가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널리 알려진 ‘동물 실험’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겠다.

2) Cohen(1986), 868쪽. Cohen&Regan(2001), 12쪽도 보라.

하여 동물 실험을 정당화한다. 국내에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 실험의 윤리에 대한 논의가 아주 드물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논문들의 의미는 아주 크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이 연구들이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며 잘못된 가정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코헨, 추정완 등, 김 교수의 동물 실험 옹호를 비판하려고 한다. 그 중 추정완 등은 영장류 실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코헨과 김 교수는 동물 실험 일반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는 동물 실험 일반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어도 영장류 실험은 분명히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자리 상황 논증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곧 가장자리 인간과 영장류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가장자리 인간에게 실험을 허용할 수 없다면 영장류에게도 실험을 허용할 수 없다. 코헨과 김 교수도 영장류 실험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나의 결론은 추정완 등뿐만 아니라 코헨과 김 교수에게도 적용된다.

2. 동물권과 동물 해방 이론

동물을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크게 두 가지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 하나는 권리 개념에 바탕을 둔 리건(Tom Regan)의 동물권(Animal Right)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에 기반하는 싱어(Peter Singer)의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 이론이다. 추정완 등은 이 두 이론을 검토한 다음, 그 이론들의 이론적 입지가 그리 튼튼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한편 김 교수는 하버마스와 롤즈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동물 실험을 주제로 하는 이 논문에서 그 이론들을 상세히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추정완 등과 김 교수의 비판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론의 소개를 대신하겠다.

먼저 리건에 따르면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내재적 가치는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지는 특별한 권리인데, 동물은 그런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³⁾ 그런데 추정완 등은 리건의 내재적 권리론은 “이론적으로 애매할 뿐만 아니라 동물권 옹호론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윤리적 직관과도 괴리되는 담론”⁴⁾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우선 인간에게는 도덕적 사고 및 선택 능력이 있는데 반해 동물에게는 도덕적 사고와 실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권리는 서로 간에 도덕적 주장을 실제로 하고 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서만 생기고 명료하게 옹호될 수 있다.”⁵⁾라고 말한 코헨의 주장과 상통한다. 또 김 교수가 거론하는 하버마스와 롤즈가 도덕은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추정완 등이 인용하는 워런(M. A. Warren)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성의 유무를 거론한 것도 동일한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곧 추정완 등과 김 교수, 그리고 코헨, 하버마스, 롤즈, 워런은 모두 도덕적 판단이나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에게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리건 비판은 리건이 왜 모든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인간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해 보자. 그러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인간들, 가령 유아·식물인간·장애인 등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인간 중 도덕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존재는 인간 범주에서 가장자리에 있으므로, 그것에 의존한 논증을 가장자리 상황 논증(the argument from marginal cases)이라고 한다.⁶⁾ 추정완 등이나 코헨은 이 논증의 결론을, 곧 가장자리의 인간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3) Regan(1983).

4) 추정완·최경석·권복규(2007), 44쪽.

5) Cohen(1986), 865쪽.

6) marginal은 ‘한계’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가장자리’라는 말이 더 쉽게 이해되므로 ‘가장자리’라는 말을 쓰겠다.

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장자리 상황의 인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게 권리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중심부든 가장자리든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성질은 살아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삶의 주체(subject-of-a-life)라는 성질이다. 리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개체가 믿음과 욕망을 갖는다면, 지각과 기억과 자기 자신의 미래가 포함된 미래감을 갖는다면, 쾌락과 고통의 느낌이 있는 감정적 삶을 산다면, 선호와 복지와 관련된 이익을 갖는다면,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할 능력이 있다면, 심리적인 동일성을 갖는다면, 자신이 경험하는 삶이 다른 존재의 유용성과는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또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잘 살거나 못 산다는 의미에서 개별적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⁷⁾

그런데 이런 삶의 주체는 가장자리의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만이 갖는가? 그렇지 않다. 상당수의 동물들도 누리는 성질이다. 그러므로 가장자리의 인간이 권리를 갖는다면 동물들도 권리를 갖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⁸⁾ 추정완 등은 리건의 이론이 “이론적으로 애매할 뿐 아니라 동물권 옹호론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윤리적 직관과도 괴리되는 담론이다.”⁹⁾라고 리건을 비판하지만 이론적으로 애매한 것은 오히려 리건을 비판하는 쪽이다. 그리고 리건은 ‘우리의 윤리적 직관’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그것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은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

리건이 권리를 갖는 각 개체에 주목하는 반면에 싱어는 개체의 이익에 주목한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감각 능력이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종에서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을 주장한다.¹⁰⁾ 추정완 등은 프레이(R. G. Frey), 폴란(Michael Pollan) 등의 비판을 근거로 “싱어의 철학적

7) Regan(1983), 243쪽.

8) 물론 코헨은 이 논증에 대해 인간만이 권리를 갖고 동물은 권리를 갖지 않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다.

9) 추정완·최경석·권복규(2007), 44쪽.

10) 싱어(1997, 1999).

입장을 나타내는 특유의 자극적인 주장은 그 입지가 좁아드는 것은 분명하다.”¹¹⁾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분명하다’고 말할 정도로 충분히 비판이 제기되었는지 의문이다.

우선 프레이는 싱어처럼 행위 공리주의자이지만 동물의 윤리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린다. 그는 코헨과 달리 동물의 생명도 충분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동물의 삶보다 더 풍요롭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고, 그래서 동물의 이용은 정당화된다.¹²⁾ 그러나 싱어도 인간의 삶이 동물의 삶보다 가치가 더 높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이의 이런 비판은 싱어의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을 오해한 허수아비 비판이다. 이런 오해는 김 교수의 싱어 이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싱어의 논리대로 하자면, 우리는 자기의 자식과 아프리카에 사는 생면부지의 아이를 똑 같이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더 나아가 아마도 이웃집 가축의 새끼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 같다).”라고 말한다.¹³⁾ 그러나 싱어는 자신의 원칙이 모든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고려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¹⁴⁾ 가령 그

11) 추정완·최경석·권복규(2007), 46쪽.

12) Frey(1988).

13) 김명식(2007), 250쪽. 김 교수는 Regan에 대해서도 동물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는 인간과 개 10만 마리 중에서 인간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Regan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 리건 입장에서 할 소리는 아니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것은 리건이 자기 이론의 기초로 그토록 강조하는 일관성을 훼손하는 대답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과 동물의 생명이 다 같이 ‘삶의 주체’로서 동등한 것이고, 특히 리건은 내재적 가치라고 했는데, 문제는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소중한 가치인 것이지, 다른 가치와 비교해 그 값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248쪽)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Regan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다. 동물의 권리가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더 큰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침해될 수 없다는 뜻이지 인간의 내재적 가치와 비교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내재적 가치가 있지만 가령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태아를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구하기 위해 내재적 가치가 있는 개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14) 싱어(1997), 46쪽. 김성한(2007, 258-260쪽)과 박창길(2008, 230쪽)도 이런 오해에 대해 싱어 편에서 해명하고 있다.

가 이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통 피하기를 예로 들어 보면,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가장자리 인간과의 관계도 고려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동물보다 훨씬 더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인정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에게 명백하게 가해지는 고통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이 동물의 삶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해도, 그 말이 동물의 삶이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 먹이가 되고 실험 대상이 되어도 괜찮을 정도로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 동물의 고통과 거기서 생기는 인간의 이익을 공리주의적으로 비교할 때 인간의 이익이 압도할 정도로 크다면 동물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뒤에서 논의하겠다.

추정완 등이 또 인용하고 있는 폴란은 동물의 사육과 동물 실험 과정에서 동물을 배려하고 인도적인 대우만 보장한다면,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충분히 실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 폴란은 철학자가 아니고 자연주의자 저술가이다.¹⁶⁾ 자연 친화적인 농장에 관심이 많은 폴란은 인도적인 사육과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적인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루찰스키(Bart Gruzalski)는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발전해도, 아무리 고기가 잘 포장되더라도, 육류 산업의 중요한 현실은 변할 수 없다.”라는 육류 산업 지지자의 말을 인용한 다음에, 이 산업의 경영자들은 종사자들에게 동물은 감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게 만든다고 지적한다.¹⁷⁾ 가축이 집에서 가족처럼 길러지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폴란

15) Pollan(1992).

16) 그의 저서 중 『식물의 욕망』과 『잡식주의자의 딜레마』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 사실 전문적인 철학자가 아닌 그의 발언은, 물론 그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현재 논의에는 참고로만 그쳐야 한다. 그는 가령 이 논문의 주제인 가장자리 상황 논증에 대해서 “내가 평등을 믿는다면, 그리고 평등이 특성보다는 관심[이익]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나는 송아지의 관심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내가 종차별주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당분간은 그냥 죄를 인정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먹고 있던 스테이크를 마저 다 먹었다.”(폴란, 2007, 391쪽)라고 말하고 있다.

의 주장은 실현불가능한 이상일 뿐이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만 먹거나 스스로 만든 약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먹는 고기나 약이 인도적인 대우를 거쳐서 생산된 것임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폴란의 제안은 삶의 지침으로서도 유용하지 않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제안한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왜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만 그런 사육과 실험이 정당화되는가, 가장자리 상황의 인간에게는 인도적이라면 사육과 실험이 똑같이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역시 가능하다.

위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김 교수가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동물은 도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도덕 문제들은 오직 언어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춘 주체들의 영역 안에서만 제기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도덕의 영역을 동물들로 확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인간과 상호성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⁸⁾ 또 롤즈에 따르면 “도덕은 상호협조체제인 사회에서 합리적인 주체들간의 상호 작용을 지배하는 규칙체계로, 인간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적인 공동체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반면 동물은 애당초 이 범주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¹⁹⁾ 곧 하버마스나 롤즈 모두 도덕은 인간들끼리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계약주의적 도덕관을 지니고 있고, 김 교수는 거기에 동의한다. 김 교수가 이런 도덕관을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심의 민주주의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심의 민주주의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한 결정은 그것에 의해 영향 받는 대중들의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되어야 한다고 믿는 신념이다.” 그리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지는 “담론을 통한 승인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여기까지는 심의 민주주의의 세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17) Gruzalski(2004), 126-7쪽.

18) 김명식(2007), 240-1쪽.

19) 김명식(2007), 246쪽.

20) 김명식(2007), 233, 241쪽.

사람도 이권이 없을 것이다. 도덕 원리가 됐든 정치 원리가 됐든 어떤 원리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정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취할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김 교수는 직관과 대중들의 합의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과 합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야 반대의 결론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박창길 교수는 동물 실험을 둘러싼 논쟁이 이상적 담론 상황이 아니라, 집단의 정치적 내지 사회적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데²¹⁾,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 다수의 직관과 합의가 곧 ‘집단의 정치적 내지 사회적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인종 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도 얼마든지 직관과 합의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에 의해 그런 계약주의적 도덕관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주의적 도덕관은 일찍이 싱어에 의해서 윤리적 판단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정당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역사적 설명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생겨나는 윤리 체계의 옳음이나 그름에 대한 견해를 무엇이나 받아들여만 하는 것은 아니”²²⁾기 때문이다. 김 교수도 이런 비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비판을 소개하면서도 “어쨌든 싱어의 주장은 실천적인 원리로는 부적합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동물에게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부담을 감수 하느니 차라리 도덕 자체를 포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³⁾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도덕 이론을 다루는 합리적인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이성적인 논의에 의해 도달한 결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아예 도덕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엎포’는 어떤 이론을 배제하는 근거가 못 된다. 인종차별주의자가 유색인종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라는 도덕 이

21) 박창길(2008), 244쪽.

22) 싱어(1997), 106-7쪽.

23) 김명식(2007), 250쪽.

론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도덕 자체를 포기하자는 주장을 하면 합리적일까?

계약주의적 도덕관의 더 큰 문제는 도덕의 영역에서 동물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인간들도 배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인간과 상호성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싱어가 지적한 것처럼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의무도 갖지 않으며, 우리는 미래 세대의 후손들과도 상호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갖지도 않는다.²⁴⁾ 물론 김 교수는 같은 인간끼리 느끼는 특별한 유대감으로 이 문제를 피해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추정완 등은 리건과 싱어의 비판을 통해 그들의 이론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나, 그것이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²⁵⁾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건도 그렇지만 싱어는 “(…) 이제껏 나는 논파하기 힘든 비판을 접해 보지 못하였으며, 이 책이 기초하고 있는 단순한 윤리적 논거의 견고함을 의심하게 만든 논변은 없었다.”²⁶⁾라고 자신의 논변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다. 실제로 리건과 싱어의 동물권 또는 동물 해방의 이론적 토대는 매우 튼튼하다. 그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추정완 등과 김 교수 그리고 코헨에게 남아 있다. 그러나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리건과 달리 공리주의자인 싱어에게서는 동물 실험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된다. 리건에서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수단으로 쓰일 수 없지만, 싱어에서는 동물 실험에서 생기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그 계산에 대해 궁리해 보자.

24) 싱어(1997), 108쪽.

25) 추정완·최경석·권복규(2007), 50쪽.

26) 싱어(1999), 22쪽.

3. 동물 실험의 이익과 손해

머리말에서도 말했지만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동물의 다른 이용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레이첼스(James Rachels)는 육식과 동물실험을 비교하면서, 동물 실험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인간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논증은 육식을 반대하는 논증보다 약하다고 말한다.²⁷⁾ 공리주의에 따르면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주는 이익이 분명하고 상당해서 동물이 받는 피해를 상쇄한다면 그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싱어도 이렇게 말한다. “하나 혹은 심지어는 한 다스의 동물이 수천을 구하기 위하여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공리주의자가 제시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다.”²⁸⁾ 문제는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과 동물에게 끼치는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것이다. 그 이익과 손해는 얼마나 많은 수의 인간과 동물에게 관련되는지도 따져야 하고, 단순히 예측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확실한 것인지도 따져야 한다.

김 교수는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다섯 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²⁹⁾ 첫째는 동물 실험이 현대 의학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동물만큼 인간과 유사한 존재는 없다는 점이고, 셋째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신뢰할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고, 넷째는 동물 실험이 금지될 경우 인체 대상의 실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가족이 불치병에 걸린 긴박한 상황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는 이 중 셋째, 넷째, 다섯째 근거에 대해서는 가장자리 상황

27) Rachels(2004), 75쪽. 그러나 Rachels의 의도는 동물 실험 반대 논증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반대하는 논증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일부 동물 실험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육식은 여전히 그르다.”라는 것이다.

28) 싱어(1997), 94쪽.

29) 김명식(2007), 237-9쪽.

논증에서 대답할 것이다. 남는 것은 첫째 근거와 둘째 근거이다. 먼저 둘째 근거에 대해 먼저 대답하면, 김 교수의 주장과 달리 인간과 동물의 생리학적 차이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마취학자와 의사인 레이 그릭과 진 스윙글 그릭 부부는 동물 실험을 모델로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뿐더러 과학의 발전을 방해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³⁰⁾ 인간의 유전자에서 염기 서열 단 하나만 잘못돼도 불치병이나 기형이 발생하는데, 인간과 영장류 사이에 유전자가 1% 차이나는 것은 생명체 내의 메커니즘에서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물 모델에서 얻은 결과를 99%의 유사성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의 차이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탈리도마이드, 오프렌, 지프프롤 같은 약품들은 동물 실험을 통과하여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인간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악명 높다. 특히 탈리도마이드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수의 기형아를 태어나게 하였다. 김 교수는 이 점에 대해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동물해방을 말하다가 갑자기 인간과 동물의 생리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논리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³¹⁾ 그러나 이것은 동물권 이론이나 동물 해방 이론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그 이론들이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강조할 때는 모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고(특히 영장류와는 의식 수준에서도 유사하다는 점이고), 차이점을 강조할 때는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제외한 생명체 내의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므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주장되는 유사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그러면 김 교수의 첫째 근거, 곧 동물 실험이 현대 의학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이 점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 옹호론자들과 폐지론자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코헨에게는 동물 실험의

30) 레이 그릭·진 스윙글 그릭(2005, 2006).

31) 김명식(2007, 237쪽).

이익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막대하다. 그는 캠프가 열리던 매년 여름이면 소아마비에 걸릴까 봐 두려워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실험실의 동물이 없었다면 소아마비 백신은 개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³²⁾ 우리는 동물 실험을 통해 “셀 수 없는 진보”³³⁾를 이루어냈다. 무서운 질병을 없애고,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 것은 모두 동물 실험 덕분이다. 그래서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은 단순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진 진보 중 가장 중요한 곳에서 필수 조건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³⁴⁾ 그러므로 “의학에서의 놀라운 진보와 인간에게 소중한 수많은 업적들은 실험실에서 동물을 사용한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거기에 참여한 동물 생명의 손실을 훨씬 능가한다.”³⁵⁾ 오히려 “생명의료 연구에서 동물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근거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그르다.”³⁶⁾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리건이 보기에 코헨의 주장은 일단 과장이다. 공중위생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 생명의 연장은 환경 개선과 개인위생의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크지 의학적인 개입은 미비하기(3.5에서 5% 정도) 때문이다. 또 특정 분야에서 동물 실험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도 동물 실험이 의학 발전의 필요 조건은 되도 충분조건까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물 실험을 금지했다면 그런 발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⁷⁾ 나는 동물 실험이 현대 의학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 실험이 현대 의학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물 실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것은 고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입증의 책임은 동물 실험 옹호론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³⁸⁾

32) Cohen&Regan(2001), 11-2쪽.

33) Cohen&Regan(2001), 12쪽.

34) Cohen&Regan(2001), 12쪽.

35) Cohen&Regan(2001), 85쪽.

36) Cohen(1986), 868쪽.

37) Cohen&Regan(2001), 304-5쪽.

38) 입증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최훈(2002)을 보라.

그러나 나는 동물 실험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충분하고도 필요한 방법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을 보류하겠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익을 준 사례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만을 가져온 사례도 있을 것이며 그 때문에 의학의 발전이 늦춰진 사례도 있을 테지만, 그 중 어느 쪽의 사례가 더 많은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익을 준 사례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동물의 고통을 압도할 정도로 큰 것인지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나는 대신에 동물 실험의 경우에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실험이 대비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어 대차대조표를 짜보는 방법을 사용하여,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겠다.

우리는 앞에서 리건이 삶의 주체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았다(주7). 그 목록은 싱어가 이익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 것과 비슷하다.

고통을 피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우정과 애정을 즐기며 교환하고, 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이익.³⁹⁾

싱어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느냐, 리건의 삶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어느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는 달라진다. 리건은 삶의 주체의 조건으로서 미래감이나 심리적 동일성 등을 거론하므로 싱어의 이익보다 좀더 좁은 범주에 적용될 것 같다.⁴⁰⁾ 가령 영장류나 소, 돼지 등은 미래감이나 심리적 동일성이 있는 것 같으므로 삶의 주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닭이나 쥐가 삶의 주체인지는 논란거리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닭이나 쥐에게 고통을 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존재들도 고통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감이나 심리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이 용납될 수 있다는 뜻일 뿐이다.⁴¹⁾ 반면에 미래감이나 심리적 동일성이 있는 존재는 비록 고통 없이 죽

39) 싱어(1997), 45쪽.

40) 미래감이나 심리적 동일성은 Rachels가 말한 '전기적 삶'을 지닌 존재에 해당할 것이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최훈(2007), 190-3쪽을 참조하라.

인다고 하더라도 그의 미래감과 동일성을 좌절시키므로 도덕적으로 그르다. 육식의 경우에는 앞에서 폴란이 말했듯이 미래감과 심리적 동일성 없는 존재를 고통 없이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육식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동물 실험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그 존재가 미래감과 심리적 동일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사용하는 이익이라는 용어는 싱어가 말한 의미이다. 그리고 그 이익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고통이 된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이익과 고통 비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 ② 인간의 상당한 이익을 위해 하등 동물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 ③ 인간의 상당한 이익을 위해 고등 동물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 ④ 인간의 상당한 이익을 위해 인간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 ⑤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인간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 ⑥ 인간의 상당한 이익을 위해 인간이 사소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동물 실험을 제외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관행은 대부분 ①에 해당할 것이다. 고기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에스키모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 입맛이라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사육되고 도살되는 동물의 고통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익은 아주 사소하다. 모피를 입기 위해 동물을 죽이거나 서커스, 동물원, 사냥 등의 관행도 모두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동물 실험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실험도 ①에 해당한다. 화장품·식용 색소·바닥 광택제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해서 생기는 이익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익은 분명히 아니다. 싱어가 『동물해방』 2장에서 보여주는 여러 실험들은 굳이 동물의 고통을 거치지 않아도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과학적 특수 용어

41)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런 존재를 죽이는 것은 세상에 있는 쾌락의 양을 줄이는 것이 되므로, 죽이는 대신에 다른 존재로 대체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훈(2007), 192쪽을 보라.

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것들은 “인간 또는 다른 동물들의 중요한 이익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⁴²⁾ 실험들이다. 이익이 있다면 일부 연구자의 자기만족과 연구비 유지 정도인데, 이것은 동물이 받는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아주 사소하다.

실험실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쥐가 ②의 하등 동물이라고 해 보자.⁴³⁾ 쥐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싱어에 따르면 “쥐는 지능을 갖춘 동물로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그들에게 행해지는 무수한 괴로운 실험을 통해 고통을 받는다.”⁴⁴⁾ 그런데도 영장류나 개에 대한 실험과 달리 쥐에 대한 실험에 무관심한 것은 영장류처럼 우리와 비슷하지도 않고 개처럼 우리와 친하게 지낼 기회가 많지도 않기 때문일 것이다. 쥐에게 상당한 고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다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쥐의 고통은 무시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에게 하등 동물의 상당한 고통을 상쇄할만한 상당한 이익이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나는 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경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익과 고통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간이 이익을 얻고 얼마나 많은 동물이 고통을 받느냐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⁵⁾ 또 동물에게 주는 고통은 지금 실재하는 분명한 것이지만 인간에게 실현된다고 생각되는 이익은 추측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⁶⁾ 판단을 유보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논문의 관심은 ②보다 ③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등 동물은 주로 영장류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보노보가 포함된다. 추정완 등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진화상으로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자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42) 싱어(1999), 84쪽.

43) Regan에 따르면 미국 실험실에서는 쥐나 생쥐가 동물로 간주되지 않아 실험동물 대체수를 보고할 때 그 수가 보고되지 않는다고 한다. Cohen&Regan(2001), 298쪽.

44) 싱어(1999), 76쪽.

45) 이 문제에 대해서는 Cohen&Regan(2001), 298-9쪽을 보라.

46)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싱어(1997), 93쪽을 보라.

있다. 침팬지는 유전자의 99%가 인간과 일치할 만큼 종간의 생물학적 차이도 크지 않다.”⁴⁷⁾ 이런 특징 때문에 영장류에 대한 실험은 인간에 대한 적절한 실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동물이 된다.

반면에 인간과 영장류 사이에는 유사성이 큰 만큼 윤리적인 논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지적인 능력이나 생물학적 구조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인간을 동의 없이 우리에게 가두거나 실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영장류에 대한 실험도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주 엄격한 공리주의자를 제외하고는 ④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자는 거의 없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나 일본군에 의해 인체 실험이 행해진 적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그런 실험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④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③은 허용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침해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치라는 점에서 인간과 별로 차이가 없는 또는 동등한 영장류에 대해서만 실험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영장류보다 훨씬 못한 인간도 있으므로, 인간과 영장류의 차이점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느냐 아니면 특정 영장류라는 종에 속하느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③과 ④를 다르게 취급하는 사람은 종에 기대어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개한 사회에서는 ⑤가 허용될 때도 있었다. 일부 귀족의 만족을 위해 노예제가 허용되기도 하고, 순장이 관례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⑥은 어떤가? 내가 사소한 고통을 참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작게는 헌혈부터 크게는 골수 이식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내가 헌혈이나 골수 이식을 하면 나에게는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 주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이 주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헌혈 또는 골수 이식을 요구할 권리는 없고 나에게도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헌혈이나 골수 이식은, 하면 칭

47) 추정완·최경석·권복규(2007), 50쪽.

찬을 받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 않는 성인(saint)의 윤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⑥마저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③을 요구할 수 있을까? ⑥과 ③의 차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인가 영장류인가밖에 없고 오히려 ③에서는 그 고통이 상당한 것인데 말이다. ⑥은 요구할 수 없지만 ③은 요구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③과 ④를 다르게 취급하는 사람처럼 특정 종에 속한다는 사실 말고는 도덕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③에서는 인간의 이익이 동물의 상당한 고통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비교되는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고통은 모두 생명이다. 영장류의 실험에 의해 인간은 생명을 구하고 영장류는 극심한 고통 끝에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이 영장류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의 생명이 영장류의 생명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장자리에 있는 일부 인간의 생명은 영장류의 생명과 비슷하거나 더 못하다. 또 인간의 생명과 영장류의 생명이 비슷한 가치라고 해도, 관련되는 개체의 수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인간의 생명의 수가 잃게 되는 영장류의 생명의 수보다 월등하게 많다면 공리주의의 기준에 따라 ③이 허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는 사람은 이익을 받는 인간의 수는 상당히 많고 고통을 받는 인간의 수는 상당히 적은 경우에 ④나 ⑥도 허용되어야 일관적이다. 특히나 그때 희생당하는 인간이 영장류와 의식이나 합리성 수준에서 비슷한 가장자리 인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④는커녕 ⑥도 허용 안할 것이다. 이것은 일관적이지 못하다.

가장자리 인간에 대해 ④나 ⑥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동물에 대해 ③은 허용하는 유일한 근거는 가장자리 인간도 정상적인 인간과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지적 수준의 영장류에게는 고통이 허용된다. 이것은 다른 도덕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데도 어떤 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종차별주의

(specisism)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종차별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4. 가장자리 상황 논증과 종차별주의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는 차이점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된다. 합리성, 언어 사용, 도구 사용, 도덕적 판단 등은 인간은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가지고 있지 못한 특성으로 흔히 말해진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그런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유아, 치매 환자, 뇌 손상 환자, 식물인간 등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언어나 도구도 사용하지 못하며 도덕적 판단도 하지 못한다. 싱어에 의하면 “성인 유인원·원숭이·개·고양이·쥐,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아이들에 비해 스스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들에 비해 더 자발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최소한 인간의 아이 못지않게 고통을 느낄 수 있”다.⁴⁸⁾ 가장자리 상황 논증은 이런 인간과 동물, 특히 영장류를 일관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자리 인간과 영장류를 도덕적으로 의미 있게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위에서 구분한 것으로 말해 보면 ④나 ⑥을 허용할 수 없다면 ③도 허용해서는 안 되고, ③을 허용할 수 있다면 ④나 ⑥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를 받아들일 사람은 나치나 일본군, 그리고 철학자 중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프레이 정도밖에 없다. 대부분은 전자를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가장자리 인간들에게 하는 대우를 영장류에게 똑같이 해야 일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영장류에게 하는 대우를 가장자리 인간들에게 똑같이 해야 일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⁴⁹⁾ 그러나 영장류에 대한 동물 실험은 가장자리 인간들에게는 해서는

48) 싱어(1999), 153쪽.

49) 추정완·최경석·권복규(2007, 51쪽)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인간과 다른 동물 종간의 극단적인 상황 속의 우열 비교 또는 생명 권리의 내재적 이론 등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희석시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가장자리 상황 논증은 여러 학자가 이용하는 매우 강력한 논변이다. 프레이는 이 논증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대응한다. 그는 “나는 아무리 열등한 인간의 삶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고등한 동물의 삶보다 더 가치 있다고 선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⁵⁰⁾라고 말한다. 프레이의 기본적인 입장은 고등 동물과 가장자리 인간은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생체실험을 반대하거나 가장자리 인간에 대한 실험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체실험은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많은 이득이 되므로 가장자리 인간에 대한 실험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⁵¹⁾ 물론 프레이는 이 허용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분개할 것이고, 사회는 대소동이 일어날 것이며, 병원과 연구 센터는 격렬한 공격을 받을 것이며, 의사-환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⁵²⁾이라는 부작용을 걱정하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에 의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싱어도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자의식이나 자율성 혹은 그와 비슷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간격을 둔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인간들]을 우리 반대쪽에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간격이 도덕적 위치에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보다는 동물로서의 도덕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⁵³⁾

가장자리 인간들이 동물과 같은 도덕적 위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싱어의 주장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우리가 동물에게 부여하는 도덕적 지위는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것이다. 동물이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실험이나 육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용인한

말하는 것도 그런 오해로 보인다.

50) Frey(1983), 96쪽.

51) Frey(1983), 115-6쪽. Frey(2002), 172-3, 184-5쪽

52) Frey(1983), 97쪽.

53) 싱어(1997), 102쪽.

다. 싱어는 가장자리 사람들에게 현재 우리가 동물에게 하는 그런 대우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⁵⁴⁾ 그런 대우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의식과 같은 특징으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면 그런 결과가 생기므로 그런 특징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특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으로 의미 있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없고 그들은 모두 이익을 갖는 존재이므로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그러므로 싱어의 의도는 가장자리 인간의 지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다. 앞 문단에서 말한 전자와 후자 중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자리 상황 논증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은 코헨에서 찾을 수 있다. 코헨은 종차별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어린이는 성인처럼 권리를 갖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인간 삶에서 필수적인 특성이다. 유아나 노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이다. [가장자리 상황 논증]은 권리를 누구에게는 부여하고 누구에게는 부여하지 않으며, 능력이 부족하면 권리를 철회해버린다. 그러나 권리는 예외 없이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인간 모두에게 적용된다. [가장자리 상황 논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도덕적 특성을 인간들을 걸러내는 체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도덕 판단 능력은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실행되는 테스트가 아니다. 어떤 장애 때문에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도덕 능력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지는 않는다. 결정적인 구분은 종에 의한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 때문에 권리를 갖게 되는 종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일 것이고 그래왔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산다. 인간의 권리가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변동된다는 각 개인이 쇠락함에 따라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다. 이와 반면에 동물은 권리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종이다. 인간은 장애가 생겨도 가지고 있는 것을 쥐는 절대 갖지 못한다.⁵⁵⁾

54) Singer는 이 점 때문에 장애인의 안락사를 지지한다고 오해받는다. 싱어(1997)의 부록을 보라.

55) Cohen&Regan(2001), 37쪽. 강조는 Cohen이 함.

코헨의 종차별주의 옹호 논증은 단순한 편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든 가장 자리 인간이든 모두 인간이라는 종(kind)에 속한다. 인간이 모두 도덕적인 권리를 갖고 도덕적으로 똑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같은 종에 속하기 때문이다.⁵⁶⁾ 롤즈의 영역 성질(range property)도 코헨의 종 개념과 비슷하다.⁵⁷⁾ 롤즈에 따르면 어떤 단위 원의 내부에 있다는 성질은 그 원 안의 점들이 갖는 영역 성질이다. 원 속에 있는 점들은 더 내부에 있는 것들도 있고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원 안에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롤즈는 이 원 안에 들어와야 평등한 정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 밖에 있는 동물들은 그 성질이 어떻든 간에 정의의 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롤즈의 이 원이 곧 코헨이 종을 나누는 경계선과 일치한다.

그러면 이때 종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코헨은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므로 그를 자비롭게 해석해 보자. 어떤 구성원들이 같은 종에 속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 그 공통의 속성은 무엇일까? 그 공통의 속성으로 합리성, 언어 사용, 도구 사용, 도덕적 판단 등이 거론됐다. 우리는 예컨대 합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종에 속한다는 것이다.⁵⁸⁾ 그러나 그것을 갖지 못한 인간들이 있음이 드러났다. 인간은 자연종(natural kind)이라는 답변도 가능하다. 자연종은 그 구성원들이 한 종의 구성원됨(membership)을 위해 필요충분한 공통적 속성을 공유하는 그런 종류의 상정물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자연종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대상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만 의해서 공유되는 속성들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공유 속성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종을 정의하는 공유 속성을 제시하지 않고서 인간이라는 종은 자연종이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망하다.

그 공유 속성의 역할로 DNA가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전자 결핍

56) Cohen에 대한 반대 논변으로는 Nobis(2004)와 Tanner(2006)를 보라.

57) 롤즈(2003), 650쪽.

58) Frey는 이런 논변을 닮음에 호소하는 논변(appeal to similarity)이라고 부른다. 그도 이 논변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Frey(2002), 39쪽.

으로 태어난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과 DNA가 같지 않다. 앞서 인간과 영장류의 DNA는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장류는 어떤 인간들보다 DNA가 정상적인 인간들과 더 가깝다는 결과가 나온다. 또 우리와 똑같이 사고를 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DNA가 다른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DNA가 같은 존재에게만 도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사유 실험에서는 우리는 그 외계인들을 도덕적으로 대우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에게 우리를 도덕적으로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언어 철학에서 지시체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느냐는 지시체의 넓이 문제(spread problem)가 있다.⁵⁹⁾ 그 문제를 인간에 적용해 보자. 내가 흑인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상상해 보자. 그 때 내가 접촉하게 되는 인과적인 요소는 피부가 검은 존재, 사람, 포유류, 동물 등 다양하다. 그런데 그를 내가 사람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 보자. 이때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에게 자연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을 만하게 있느냐가 논란거리가 된다. 전자를 기술적 지시 이론이라고 하고 후자를 인과적 지시 이론이라고 한다.⁶⁰⁾ 그런데 어느 이론이 맞든 간에 사람이라는 자연종은 도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기술적인 지식에 의해 지시를 하게 됐다면 그 지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도덕적 의미를 갖기 힘들다. 어떤 존재의 피부색이 중요한 특정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고 지시할 텐데, 그것이 도덕적 의미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피부색을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른다.

59) 최훈(1999)을 보라. 거기서는 넓이 문제 외에 '깊이 문제'도 함께 다루어진다. 금을 예로 들면 깊이 문제는 우리가 금과 접촉해서 마주치는 수많은 지각적인 원인(..., 망막을 자극시키는 어떤 유형, 샘플에서 반사되는 파동의 어떤 유형, 금, 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조건, ...) 중에서 왜 하필 금이라는 깊이의 원인을 골라냈을까 하는 문제이고, 넓이 문제는 왜 하필 노란 것으로서 금이나 광물로서 금을 고르지 않고 금으로서 금을 골랐느냐는 문제이다.

60) 최훈(1999)의 제목에서 어떤 이론을 지지했는지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의 관심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지시한 것도 특정 상황의 관심에서 생긴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번에는 인과적 지시 이론이 맞다고 해 보자. 곧 우리가 한 개인을 보고 사람이라고 지시를 한 것은 우리의 특정 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인과적 힘 때문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종은 우리의 인위적인 구분이 아니라 자연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이 보통 자연종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에서 가치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구분이 아니라 자연에 토대를 둔 것이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것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차별주의라고 비난받는다. 종에 따른 구분도 뭐가 다를까?

싱어는 일찍이 종차별주의를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와 빗대서 비판했다.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비판받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 째는 어떤 존재를 그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백인이 흑인보다 똑똑하다는 이유로 흑인을 차별한다고 할 때, 백인이 흑인보다 평균적으로 똑똑할지 몰라도 백인 모두가 이 흑인보다 똑똑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똑똑함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흑인을 차별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만약 합리성이 종 간의 차별의 근거가 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부딪힌다. 인간이 영장류보다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맞지만 모든 인간이 이 영장류보다 합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싱어는 이렇게 묻는다. “인종이나 성별이 아니라 종족 간에 구분선이 그어진다는 사실이 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가? 어떤 존재가 이런 경우에는 개인으로 다루어지고 저런 경우에는 집단의 성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종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도 어떤 인종이나 어떤 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다.”⁶¹⁾

싱어에게서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피

61) 싱어(1997), 103쪽.

부색이나 성은 이익을 고려할 때 전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도 이익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다. 영장류라고 해서 생체 실험을 당할 때 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하등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코헨의 주장을 가장 자비롭게 해석하는 것은 가장자리 인간이 합리성이 있는 종에 속하기 때문이고 동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 존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비록 가장자리 인간은 합리성이 없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합리성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묻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코헨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인간의 암컷(여성)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른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 왜 인간을 암컷이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는 존재라는 범주, 곧 젖먹이동물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가? 젖먹이동물에 속하는 존재들은 대부분 암컷이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가장자리 포유류가 있게 된다. 도덕적인 고려를 할 때 왜 인간이라는 종이 포유류라는 종보다는 더 중요해야 하는가? 한편 인간을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도 가장자리가 존재한다. 인간 중에서도, 동물 중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 도덕적인 고려를 할 때 왜 인간이라는 종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종보다 더 중요해야 하는가? 상어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도덕적인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⁶²⁾ 그리고 거기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간 중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도덕적인 고려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인간이라는 종이 도덕적인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코헨은 자의적이지 않게 제시하지 못했다.

종차별주의를 옹호할 때 가장 솔직한 대답은 다른 이유 없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인간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자의식이 있든 없든 우리와 같은 인간이므로 특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62) 최훈(2009)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음(감응력 또는 쾌고감수능력)이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상어의 주장에 대해서 논의한다.

가 이해하기로는 김 교수가 종에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 느끼는 특별한 관심,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종 유대의 중요성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단순히 인간중심주의라는 한 마디로 단칼에 베어버릴 수는 없다. 종족유대가 갖는 진화상의 강점을 인정해야 한다.⁶³⁾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인가?” 식의 태도이다. 만약 이것이 옹호될 수 있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도 옹호된다. 성 유대의 중요성을 음미하고, 인종 유대가 갖는 진화상의 강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인종이고, 같은 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지역에 따른 차별 모두 옹호될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종 유대’는 실제로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를 정당화해 준다는 사실이다. 김성한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고작해야 혈연이나 소규모 집단에게 이타성을 보일 뿐이지 동일 종 구성원들을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⁶⁴⁾ 같은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잔인하게 대하는 예는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종 유대’는 종차별주의를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를 옹호해 준다.

5. 맺는말

추정완 등은 영장류를 활용한 연구 허용의 몇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⁶⁵⁾

63) 김명식(2007), 250쪽.

64) 김성한(2007), 262쪽.

65) 추정완·최경석·권복규(2007), 50-1쪽.

곧 첫째, 해당 연구가 영장류 실험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인류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연구에 필요한 영장류의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다른 하등동물로 대체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넷째, 영장류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실험방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재미있게도 김 교수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 그는 “동물실험을 되도록 삼가야 하지만 대안이 없을 경우 동물실험은 정당화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경우에도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대체(replacement)의 3R 대안법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⁶⁶⁾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볼 때 추정완 등과 김 교수는 똑같은 연구 허용의 전제 조건을 가장자리 인간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결론은 일관되지 못하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김 교수는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셋째 근거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신뢰할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넷째 근거로는 동물 실험이 금지될 경우 인체 대상의 실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섯째는 가족이 불치병에 걸린 긴박한 상황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김 교수에게 물어보자. 가장자리 인간만큼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신뢰할만한 대안이 어디 있는가? 동물 실험이 금지될 경우 가장자리 인간 대상의 실험이 증가하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족이 불치병에 걸린 긴박한 상황에서 왜 동물보다 더 확실한 가장자리 인간의 인체 실험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김 교수는 이런 질문에 대해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므로 안 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런 대답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는 프레이처럼 가장자리 인간에 대한 실험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옹호할 수 없다면 가장자리 인간과 도덕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동물에 대한 실험은 비록 3R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옹호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66) 김명식(2007), 253쪽.

참고문헌

- 그릭, 레이·진 스윙글 그릭(2005),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 다른세상.
- 그릭, 레이·진 스윙글 그릭(2006), 『가면을 쓴 과학 동물실험』, 다른세상.
- 김명식 (2007), “동물실험과 심의”, 『철학』 92, 231-256쪽.
- 김성한 (2007), “중차별주의 옹호 논변에 대한 대응”, 『철학연구』 79, 253-274쪽.
- 롤즈, 존 (2003),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 박창길 (2008), “실험동물에게 윤리가 있는지의 여부: 구명선의 논리와 심의민주주의의 이론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7, 223-251쪽.
- 싱어, 피터 (1997), 『실천윤리학』(개정판), 황경식·김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 싱어, 피터 (1999), 『동물해방』, 김성환 옮김, 인간사랑.
- 폴란, 마이클 (2007), 『잡식주의자의 딜레마』, 조윤정 옮김, 다른세상.
- 최훈 (1999),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러나 상당히 인과적인 지시 이론”, 『철학』 60, 301-321쪽.
- 최훈 (2002), “무지예의 호소는 오류인가?”, 『논리연구』 5(2), 133-151쪽.
- 최훈 (2007), 『매사에 공평하라: 벤담과 싱어』, 김영사.
- 최훈 (2009),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 『철학탐구』 25, 195-214쪽.
- 추정완·최경석·권복규 (2007), 『한국생명윤리학회지』 8(1), 41-52쪽.
- Cohen, Carl (1986), "The Case for the Use of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15, 865-870.
- Cohen, Carl and Tom Regan (2001), *The Animal Rights Debate*, Rowman & Littlefield.
- DeGrazia, David (2002), *Animal Rights: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ey, R. G. (1988), *Rights, Killing and Suffering*, Oxford: Basil Blackwell.
- Frey, R. G. (1988), "Moral Standing, the Value of Lives, and Speciesism",

- Between Species*, 4 (3), 191-201.
- Frey, R. G. (2002), "Justifying Animal Experimentation", *Society* 39 (6): 37-47.
- Frey, R. G. (2005), "Animals", in Hugh LaFollette ed. *The Oxford Handbook of Practical Ethics*, Oxford: Basic Blackwell, 161-187.
- Frey, R. G. (1983), "Vivisection, Morals and Medicine: An Exchange", *Journal of Medical Ethics*, 94-97.
- Gruzalski, Bart (2004), "Why It's Wrong to Eat Animals Raised and Slaughtered for Food", in Steve F. Sapontzis ed. *Food for Thought: The Debate over Eating Meat*, Amherst: Prometheus Books, 124-137.
- Nobis, Nathan (2004), "Carl Cohen's 'Kind' Arguments For Animal Rights and Against Human Rights",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1, 43-59.
- Pollan, Michael (2002), "An Animal's Place,"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0, 2002.
- Rachels, James (2004), "The Basic Argument for Vegetarianism", in Steve F. Sapontzis ed. *Food for Thought: The Debate over Eating Meat*, Amherst: Prometheus Books, 70-80.
- Regan, Tom (1983),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anner, Julia (2006), "Marginal Humans, the Argument from Kinds and the Similarity Argument", *Facta Universitatis: Philosophy, Sociology and Psychology* 5, 47-63.

The Ethics of Primate Experiments and the Argument from Marginal Cases

Choi, Hoon

Jung-Wan Choo, Kyung-Suk Choi and Ivo Kwon, Myung-sik Kim, and Carl Cohen are all advocates of animal experiment. In particular, Choo et. als. allow primate experiments, though they place some requirements on them. In this paper, I claim that at least experiments on primates should be prohibited, even though I cannot assess the value of animal experiment in general at the moment. The argument from marginal cases is used to support my claims: If we cannot allow the experiments on the marginal cases, then we should not allow primate experiments, because there are no mor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arginal cases and primates.

[Key words] Animal Experiment, Primate Experiment, the Argument from Marginal Cases, Animal Rights, Animal Liberation, Jung-Wan Choo, Kyung-Suk Choi and Ivo Kwon, Myung-sik Kim, Carl Cohen